

In Darwin, recently, we witnessed a few exciting electrical storms. One day, the lightning and the thunder came at exactly the same time. The lightning flashed directly outside. The thunder crashed. The house shook. Ginny jumped. I jumped. Even the dog jumped. And I wondered, would we have been killed if we'd been outside? Usually, storms in Melbourne are not so severe.

최근에 다윈에 있을때, 저희는 흥미로운 전기를 동반한 폭풍을 몇번 경험하였습니다. 하루는 번개와 천둥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왔는데요, 번개가 밖에서 바로 번쩍일때, 천둥이 쳤던 것입니다. 집이 흔들렸고, 지니는 뛰어올랐고, 저도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개도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밖에 있었다면, 죽음을 당했을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멜번의 폭풍은 대체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If stormy weather was all that we had to endure here, then I'm sure we could cope with life. But our problem is that there is increasing violence in our state. The newspapers regularly contain articles dealing with violence. Like Habakkuk, we want to know the meaning of this. And, why is there so much injustice in our society? Note 1:3b,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there is strife, and conflict abounds.*** These words could easily have come straight from our daily newspaper. 1:4b, concludes Habakkuk's first complaint to God. ***Justice is perverted.***

만약 폭풍을 동반한 날씨가 여기서 우리가 견뎌야 할 전부라면, 우리는 삶을 대처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에 증가하고 있는 폭력에 있습니다. 신문들은 정기적으로 폭력을 다룬 기사를 실곤 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불법이 난무합니까? 1:3 절, “파괴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만연하다”를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들은 오늘날 우리 신문에서도 쉽게 바로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4 절에서 하박국은 “정의가 굽게 행해졌음이나”라고 하나님께 첫번째 불평을 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Habakkuk doesn't suggest that Judah didn't deserve to be punished. The problem lay 'squarely in their camp.' They had turned away from God. They deserved whatever punishment God would bring upon them. But, Habakkuk wasn't expecting the punishment God would send. God says to Habakkuk (1:6), ***I am raising up the Babylonians, that ruthless and impetuous people, who sweep across the whole earth to seize dwelling places not their own.***

하박국은 유다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안에 완벽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린 어떤 처벌도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내실 징벌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느니라”

That was not good news to Habakkuk. The Babylonians' sins were far worse than Judah's. And so, in his second speech, Habakkuk rephrases his first question. In essence, he asks, 'Why do you tolerate a people more treacherous (evil) than Judah?' Note 1:13bc, ***Why do you tolerate the treacherous?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이는 하박국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죄들은 유다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번째 발언에서 그의 첫번째 질문을 다시 언급합니다. 본질적으로, “왜 당신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불성실한 사람들은 참으십니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1:13 절을 주목하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By 586 BC the Babylonians had destroyed Jerusalem. Many of the people in Judah were taken to Babylon, into exile. So, Habakkuk has been told that in his lifetime he'd see his country and his people ruined. Imagine the grief, the pain and the suffering that this news caused him. Yet these are also a modern day reality for us. Cultural displacement and loss affect many people today. Just take a look at Syria and other Middle Eastern countries

주전 586 년,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폐망하는 것을 일생동안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그에게 가져다준 슬픔과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끔찍함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화적 재배치와 소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시리아나 다른 중동국가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There are two ways to look at what's happening in Habakkuk's lifetime. Both are instructive for us, so we'll take the time to consider each one. The first way deals with how we grieve over loss. That loss may be due to the death of a loved one. Or, it might be the loss of your health, your money or some other possession. Loss can also include the loss (death) of a friendship or relationship. Moving to live in another country, as some of you have done, can also cause much grief. Habakkuk is now grieving over the loss that Judah will experience at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There will be pain and destruction and loss of life.

하박국의 인생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보는데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둘다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줌으로,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것들을 찬찬히 들여다 볼것입니다. 첫번째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상실을 슬퍼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상실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것일수 있고, 혹은 건강이나, 돈이나 다른 소유물의 잃어버림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실은 또한 우정이나 어떤 관계를 잃어버림을 포함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중 몇몇이 그렇듯이, 다른 나라에 이민와서 사는것도 역시 많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의 지배하에 유대인들이 겪을 상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In 1969 Elisabeth Kübler-Ross published a book entitled, *On Death and Dying*. In her book, she set out the usual stages to healthy grieving. James Bruckner notes how Habakkuk led believers through these stages more than 2,500 years ago.

1969 년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죽음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합니다. 그녀의 책에서, 그녀는 건강한 슬퍼하기에 관한 적절한 단계를 설정합니다. 제임스 브러크너는 어떻게 하박국이 믿는자들을 2500 년 이상 동안 이 단계들을 거치도록 인도했는지에 주목합니다.

At first, Habakkuk feels his isolation. 1:2,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첫째로, 하박국은 그의 고립을 느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아니하시니 어느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1:2)

Second, anger begins to show in his speech. 1:3,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Do you hear his anger? ‘Why! Why!’ It's almost as if he's saying, ‘Why me? Why am I the only one concerned about all this violence and injustice? Doesn't anyone else care? Does God even care?’

두번째 단계로, 화가 그의 발언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참으십니까? (1:3) 여러분은 그의 화가 들리십니까? “왜! 왜!” 이는 마치 그가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 모든 강폭과 불의를 근심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신경쓰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진정 신경쓰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Third, having heard about the Babylonians, Habakkuk goes into denial. (At the same time, this may be a cry of hope.) 1:12, ***O LORD, are you not from everlasting? My God, my Holy One, we will not die.*** Before I had a bad car accident I thought that I was invincible. Just like many young people, I thought that accidents only happened to other people.

세번째로, 하박국은 바벨로니아에 관하여 들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희망의 부르짖음일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 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1:12). 제가 심각한 차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저는 제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똑같이 저는 그런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Fourth, Habakkuk begins to bargain with God. Note what he says in 1:12b, 13a, ***You have appointed them to execute judgment.*** And so Habakkuk argues his case with God, ***Your eyes are too pure to look on evil; you cannot tolerate wrong.***

네번째 단계로, 하박국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1:12, 13 절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그들을 두셨군요.” 그리하여 하박국은 그의 경우를 들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너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십니다”.

Fifth, unable to cope with what will happen to his people, Habakkuk becomes depressed. 1:13b, Why do you tolerate the treacherous? Why are you silent...? The situation seems hopeless. Note 1:14, *You have made men like fish in the sea, like sea creatures that have no ruler.*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He commanded Adam and Eve to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But now, God’s chosen people are being treated like those fish. 1:15, *The wicked foe pulls all of them up with hooks, he catches them in his net, he gathers them up in his dragnet; and so he rejoices and is glad.* It’s all too much for Habakkuk.

다섯번째로, 하박국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감당할수 없기에, 의기소침해 집니다. “어찌하여 패역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십니까? (1:14).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때, 아담과 이브에게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물고기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악한 적들을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1:15).

Yet Habakkuk still has hope. He learns through his pain that God has His purpose in all that happens. Perhaps he finally realises that though the Babylonians are a wicked race, Judah deserves her punishment. *Finally, Habakkuk comes to accept that God knows what He is doing. 2:1,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s;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answer I am to give to this complaint.*

그러나 하박국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벌어지는 일 가운데 그의 목적을 두신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 배웁니다. 아마도 그는 바벨론사람들이 사악한 족속임에도, 유대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끝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We are never in a position to question God’s sovereignty in life. This side of eternity, we’ll never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pain and suffering. And so we’re troubled by questions such as why some people are healed and others die due to disease. Why are we well-off, here, while other nations suffer with poverty, persecution and disease? Is it some simple chance of birth? This is where Habakkuk helps us. He digs deep into the mysteries of God’s ways. Why does God do what He does? How long must they endure this suffering?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God never answers Habakkuk’s question why. He does, however, answer ‘How Long?’

우리는 결코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의심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불멸의 삶의 일부분인 이 삶속에서, 우리는 결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몇몇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다른사람들은 병으로 죽게 되는지, 왜 이땅에서 누구는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과 박해와 질병등으로 고생하는지와 같은 의구심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몇몇사람들의 출생의 확률일까요? 이는 하박국이 우리를 돕는 지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방식의 신비를 깊게 파헤쳐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그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한번도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오래동안인지”를 답하십니다.

We’re drawing close to the centre of Habakkuk’s message. So, here’s a preview of what’s to come. 2:4b,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But, like Habakkuk, we’re not there yet. Along with him, we must wait. So, how can we deal with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God’s apparent lack of action? In view of His moral standards, it certainly seems strange that God would allow the Babylonians to overrun Judah. How would we feel if our nation were to be destroyed by another one? We’d be asking the same questions that Habakkuk asked. At a personal level, we already do question God. Very often our questions are, *Why me? Why doesn’t God bless Christian people, with good health and prosperity, and with lovely happy families?*

우리는 하박국의 메세지의 중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앞으로 올것에 대한 미리보기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4). 그러나 하박국처럼 우리도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며 어떻게 우리가 얼핏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볼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지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만일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떨겠습니까? 우리는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주 우리의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왜 제가?” “왜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건강과 번영, 혹은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족등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It’s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questions rather than worrying about the answers. For, at the heart of these questions is the idea that God owes us something. Yet, that’s not true. God is fully satisfied within Himself, within the Trinity of Father, Son and Holy Spirit. He is no debtor to anyone. The only thing we can call upon is the covenant that God has made with His people. At the heart of His covenant are His promise,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See, for example, Genesis 17:7; Revelation 21:3.]

그 해답을 걱정하기 보다는 질문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질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안에서 스스로 완전히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의 언약의 중심에는 그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7:7, 계시록 21:3 참조).

If you’re not a Christian, maybe you’ll use your difficulties as an excuse to blame God when something goes wrong. And when you see Christians suffering (in some way), you may feel confirmed in your unbelief. That’s faulty thinking! Apart from a lack of faith, it’s putting yourself on a higher level than God. You’re pretending to understand life far better than God. Remember, He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at lives on His earth.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뭔가 잘못되었을때 하나님을 비난할 변명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크리스천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의 불신을 확고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부족을 떠나,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다 삶을 더 잘 이해하는 체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와 그의 땅의 모든 것을 창조 하셨습니다.

What if you *are* a Christian? You may think that life should be fair. And you struggle. Life is not fair.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Or, you may struggle with faith because God doesn’t seem to answer prayer. Others have their prayers answered, but to you, God is silent. Maybe you feel like pulling back from anything spiritual.

그렇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어떨습니까? 여러분은 삶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들게 됩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들이 착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혹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믿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영적인 것들로 부터 밀어내어지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This is where Martin Lloyd-Jones helps us to understand this book, Habakkuk. [Martin Lloyd-Jones was a great preacher in the 20th century.] In turn, we’ll see how Habakkuk gives us a biblical approach to solving problems that are beyond us. Based on Habakkuk, Dr. Lloyd-Jones suggests four steps for us to take.

1. Stop to think.
2. Go back to basic principles.
3.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 problem.
4. If you’re still in doubt, commit the problem to God in faith. Leave the matter with God.

이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하박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돕는 지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 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넘은 그 이상의 문제들을 푸는 것에 성경적 접근을 보여줄것입니다. 하박국에 기초하여, 로이드 존스 박사는 우리가 거쳐야 하는 네가지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 1, 생각하기위해 멈추기
- 2,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기
- 3, 이 원칙들을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것
- 4,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의심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위탁할것,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것.

First, Habakkuk stopped to think. We read in James 1:19,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Our problem is that we're slow to listen, quick to speak and quick to become angry. Note 2:1, Habakkuk says that he **will stand watch... I will look to see what he [God] will say to me.**

우선 하박국은 생각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19 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읽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듣는데는 느리고 말하는데는 빠르고, 화를 내기에는 급하다는데 있습니다. 2:1 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Second, Habakkuk reminds us of God's qualities that set God apart from His creation. Habakkuk reminds us of these basic facts. 1:12a, **O LORD, are you not from everlasting?** Habakkuk uses God's covenant name, LORD. This is the God who told Moses (Exodus 3:14, 16b), **"I AM WHO I AM... I have watched over you and have seen what has been done to you in Egypt."**

두번째는, 하박국은 우리가 그의 창조물들중 따로 분리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박국은 이 기본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 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1:12).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주 라고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출애굽기 3:14, 16)

In Habakkuk 1:10-11 God told Habakkuk about the power and might of the Babylonians. Now, he reminds himself, and us, about who God really is. (1:12) God is **from everlasting.** He is eternal, without beginning and without end. Compared with God, the god of the Babylonians is merely an idol, nothing at all.

하박국 1:10-11 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력과 권세에 관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1:12). 그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바벨론의 신은 단지 우상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More attributes of God follow in 1:12b, **My God, my Holy One...** We read in 1 John 1:5b, **God is l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He is perfect and absolutely righteous and holy. Could He do something that's unrighteous? Never! Thus, Habakkuk refers to God at the end of 1:12, as **Rock.** A rock provides a solid foundation, a firm footing. God the **Rock** speaks of His faithfulness. He is trustworthy and true.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은 1:12 절에서 계속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거룩하신 분...”. 우리는 요한일서 1:5 절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가 의롭지않은 어느것을 행할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므로 하박국은 1:12 절 끝에서 반석으로써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반석은 탄탄한 기반, 확고한 초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그 반석은 그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참되십니다.

This is the God who created the whole world out of nothing, for He spoke it into being. Therefore, the Babylonians didn't rise up on their own. Note 1:12b, **O LORD, you have appointed them to execute judgment; O Rock, you have ordained them to punish.**

이분이 존재가 있으라고 말함으로, 무에서 전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들 스스로 일어선것이 아닙니다. 1:12 절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Habakkuk reminds us that God is sovereign. He controls nations and uses history for His glory. Having gone back to basic principles, Habakkuk will apply them to the situation in Judah. But first he reviews the Babylonians' cruelty and violence. Habakkuk 1:15, **The wicked foe pulls all of them up with hooks.** He then continues with this fishing metaphor, **he catches them in his net.** One commentator notes that they'd drive a hook through the lower lip of their captives. Then they'd string them out single file to make them submit.

하박국은 하나님이 절대통치자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다스리고 그의 영광의 역사를 쓰십니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서, 하박국은 그것들은 유다의 상황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우선 그는

바벨론의 잔인함과 광폭성을 재고했습니다. 하박국 1:15 절, “그 악한 원수가 낚시로 모두 낚았으니”라고 합니다. 그는 다음 낚시의 은유를 계속해갑니다, “그가 그물로 그들을 잡습니다”. 한 주석가는 그들이 그 포로들의 아랫 입술을 통해 고리를 끼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다음 줄로 이용해 모두를 한줄로 엮어 복종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Finally, in 1:15, **he rejoices and is glad**. Having inflicted these humiliating cruelties, the Babylonians rejoice in what they've done. To Habakkuk this is a mockery. How can a righteous God allow such brutality? Furthermore, these ungodly Babylonians worship the creature, not the Creator.

마침내,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15). 이런 수치스러운 잔인함을 가하며,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들이 한 행위를 즐거워합니다. 하박국에게 이는 조롱거리입니다. 어떻게 의로운신 하나님은 이런 잔혹함을 허락하실까요? 더욱이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은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을 숭상하는데도 말입니다.

In 1:16 we have Habakkuk's description of their idolatry and pagan revelry. **Therefore he sacrifices to his net and burns incense to his dragnet, for by his net he lives in luxury and enjoys the choicest food**. The Babylonians show no mercy as they slaughter the nations. Habakkuk wonders how long God will allow this happen. 1:17, **Is he to keep on emptying his net, destroying nations without mercy?** Habakkuk is describing a holocaust, something like what the world witnessed under the rule of Hitler in Germany. Hitler's aim was to destroy the Jewish race. The Babylonians showed no mercy to the Jews. Hitler was no different.

우리는 1:16 절에서 그들의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떠들썩한 잔치에 관한 서술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살육한 민족에 대해 어떤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들 허락하실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1:17). 하박국은 독일의 히틀러의 통치하에, 세상이 목격했던 것과 같은 대학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목표는 유대인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유대인에게 어떤 자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O. Palmer Robertson notes that the source of such evil is Satan. **If Cain killed his brother because he belonged to the evil one (1 John 3:12), certainly the merciless slaughter by the Babylonians must be inspired of the archenemy of the Lord Himself**. We could say the same thing about Hitler, Pol Pot and Idi Amin, and the ethnic cleansing that occurred in Rwanda in 1994.

오 팔머 로버트슨은 어떤 악의 근원은 사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면 (요한일서 3:12), 틀림없이 바벨론 사람들의 무자비한 살육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영감받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히틀러, 폴팟, 이디아민, 그리고 1994 년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종족 말살등에 관해 같은 것을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Habakkuk wrestles with God's motives. His final question in 1:17 again concerns the Babylonians. **Is he to keep on emptying his net, destroying nations without mercy?** Habakkuk has dared to question God. Now he must await God's response. It's as if he realises that he must leave his problems with his Lord. Perhaps for months or years, you and I may be in the same position as Habakkuk. It often happens, particularly on the mission field. Many missionaries struggle for years in the cause of Christ before they see some results.

하박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씨름합니다. 1:17 절에서의 그의 마지막 질문은 다시 바벨론을 우려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은 감히 하나님께 의구심을 던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마치 그가 그의 질문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달 혹 여러해 동안 여러분과 저도 하박국과 같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특히 선교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어떤 결과를 보기까지 하나님의 이유를 두고 수년간 고분분투합니다.

As Christians, we take our lead from the Lord Jesus' life. He had a big problem. He was to be made sin in order to save us. Sin would fill His body with pain and suffering. He knew that the Father could have rescued Him at any time. Instead, in obedience, the Lord Jesus would be separated from the Father who loved Him and whom He, in turn, loved. What did the Lord Jesus do? Just what Habakkuk did. He prayed. Matthew 26:39,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In effect, the Lord Jesus was saying, ‘I could wish that there was another way, but if this is Your way, then Your will be done.’

크리스천인 우리는, 예수님의 삶으로 부터 방향성을 찾을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죄는 그의 몸을 고통과 고난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언제든 그를 구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 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 26:39). 그 뜻은 예수님이 ‘내가 다른 길을 원할수도 있으나 이 길이 아버지의 길이라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abakkuk can only wait on God. 2:1,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s;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answer I am to give to this complaint.*** It is not enough just to pray and tell God about our problems. We must go further than just cast our burden upon the Lord. Like Habakkuk, we must detach ourselves from the problem. He pictures himself on a high tower. From there he can see everything that’s going on.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하박국은 그저 하나님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2:1). 하나님께 그저 우리의 문제를 알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던져놓는 것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는 높은 탑에 있는 스스로를 그림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돼가는지 모든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Martin Lloyd-Jones notes that this is important for us as we fight our spiritual battles. **Once we have taken a problem to God, we should cease to concern ourselves with it.** We’ve done all we can do. We’ve sought the guidance of Scripture, the Holy Spirit and the wisdom of Christian friends. Now, there’s nothing more to do than take it to God in prayer. But, having prayed, we often start worrying about our problems once again. If you do that, then why bother praying? Habakkuk says, ‘I’m going to get out of this rut of depression; I’m going to my watch-tower; I am going to look to God and to God alone.’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때 이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크리스천 친구들의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것 외에 아무것도 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한후에도 그 문제를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럴다면, 왜 여러분은 기도하느라 애를 씹습니까? 하박국은 “나는 이 우울의 도랑에서 나갈것이다; 나는 나의 시계탑으로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만을 바라볼것이다”.

Martin Lloyd-Jones goes so far as to say, **If you have committed your problem to God and go on thinking about it, it means that your prayers were not genuine.** So, refuse to think about it! Don’t keep going over the same problem time and time again with your friends. Don’t discuss it. Instead, wait on God. Soak in the words of Scripture in Philippians 4:6, 7,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까지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위탁하고도 그것을 계속 걱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는것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상의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빌립보서 4:6, 7 절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Habakkuk looks for an answer. Earlier (1:5), God had told him to ***look... watch—and be utterly amazed.*** At last, Habakkuk has got the message. He will watch and see how God works this out. You and I would do well to do the same. (2:1)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God may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He often speaks to His people in this way. Sometimes He will speak directly to your spirit. At other times He will order your life so that it becomes plain what God is saying to you.

하박국은 답을 고대합니다. 더 일찍이 1:5 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라....또 보라 -그리고 완전히 놀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박국은 메세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은 것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바랄것이다”(2:1).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께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종종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끔 그는 여러분의 영에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평이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리 하실 것입니다.

Martin Lloyd-Jones again: God never calls us to do any work without opening the door... Our whole life will be directed to that end. So let us watch and wait. God is true to His promises and His promises never fail. God not only hears our prayers, but, in His timing, He also answers. Amen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시: 하나님은 결코 문을 열어 놓지 않고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삶은 그 끝으로 인도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진실하시고 그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의 시간에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